

비료공장 악취 악성민원 골머리 「뉴트로」·「오도프리」로 해결

우린네이처, 절찬 판매

여름만 되면 많은 축산농가에서 악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또 가축분뇨를 활용해 비료를 만드는 비료공장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과 분쟁, 소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많은 비료공장들이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제품 배합 등 대부분 작업을 실내에서 해결하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그러나 그 후 작업장 근무 직원들이 눈충혈,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악취를 견디지 못하고 입사 하루 만에 그만두는 직원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한 비료 공장들이 있다.

전북 김제 소재 A비료공장(3000톤 규모)은 악취 제거제인 ‘뉴트로(분말)’를 사용하면서 악취 문제를 상당 수준 해결했다고 밝혔다. 계분과 우분, 톱밥, 왕겨 등을 배합할 때 15톤~20톤당 1kg을 혼합한 결과 암모니아 가스가 크게 줄었다. 그 후로는 민원 발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실내 작업이 한결 수월해 졌다. 이 공장은 한 달에 뉴트로 제품 가격으로 1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A비료공장 관계자는 “우리 공장은 거의 모든 시설이 실내로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암모니아 가스가 큰 문제가 됐다. 이 악취는 목욕을 해도 몇 일이나 간다. 직원들의 고생이 심했다. 5년 전부터 뉴트로를 사용하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뉴트로의 축산현장에서 오랜 기간 사랑 받고 있는 유명한 악취제거 제품이다. 계절이나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천연물질이지만 악취를 즉시 제거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생물 제품과 달리 소독제와 함께 사용해도 된다. 현재 우린네이처에서 판매하고 있다.

경남 함안 소재 B비료공장은 분무용 악취 제거제 ‘오도프리’ 제품을 한 달에 10만원 가량 사용해 악취를 제거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고 작업할 때만 고압분무기를 이용해 가축분뇨에 뿌려주고 있다.

B비료공장 관계자는 “매년 여름이면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올해는 아직 민원이 한건도 없다”며 “국내외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봤지만 오도프리가 저렴하고 효과도 뛰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련 시설을 알아봤는데 설치비용 5000만원에 매월 약품비 3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았다”며 “현재 오도프리를 권장량보다 50% 정도 더 사용하고 있지만 월 10만원 정도만 소요 된다”고 전했다.

오도프리는 가축분뇨 발효장, 육계사 깔짚, 액비살포시 등으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 제품이다. 최근 비료공장의 활용 문의가 늘었다. 가축분뇨 발효장이나 축사 내부 등에 물 1000ℓ에 제품 250~1000mℓ를 희석해 고압살포하면 암모니아 등 가스 문제를 해결한다. 천연 물질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으로, 미생물제나 방항제와 달리 악취물질을 직접 신속하게 제거한다.

한정희 기자